



이우일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 남과 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도널드답을 만난다는 생각에 피식, 입꼬리가 위로 슬쩍 댕겨졌다. 날카로  
우며 시니컬한데다 유머가 넘쳤던 만화 <도널드답>이 진한 페이스스를  
느끼게 했던 기억이 나서일까. 1998년 1월부터 동아일보에 만화칼럼 <도널드  
답>을 1년 3개월 동안 연재하면서 '이우일'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한방에 높  
여버린 사람. 홍대 정문 앞 놀이터에서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이우일  
(39) 씨를 만났다. 책 없이는 한 날 한 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  
음알음 듣고 읽어서 생소하지 않았는데, 다중 매체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텔레비전과 휴대폰이 없이 살아간다는 뉴스는 그가 지구인이 맞나, 과연 그  
사실이 정말일까,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 약속시간보다 서둘러 나온 그  
는 털실로 짠 검정색 모자를 이마까지 폭 눌러쓰고 카키색 점퍼에 혈령한 청  
바지 차림이었다. 도널드답이 연상돼 그를 보면 웃음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  
데, 날카로운 눈매에 웃음은 저만치 도망간 지 오래다.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책 이야기부터 꺼냈다. 최근 읽은 책 중  
《13번째 이야기》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되게 재밌는 책' 이란다. “중반부까  
지는 흥미진진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밀도가 떨어져서 아쉬웠지만 읽어가  
는 과정이 무척 재미있었어요”라며 평을 내렸다. 그는 표지작업을 했던 《보르  
헤스와 불멸의 오랑우탄》을 계기로 영국문학에 매료됐다. 원고를 받아 한 자  
리에서 읽은 후 이틀 만에 표지를 그렸을 정도였으니까, 책이 선사한 감동은  
꽤 컸으리라고 짐작된다. 만화와 소설을 많이 읽는 그는 은근히 책을 편식하  
는 까탈스러운 독자다. 특이하게도 책을 고를 때 출판사를 보는 편이다. 책을  
읽다가 겉모양에만 치중했다거나 오타라도 눈에 띄는 책은 어느 출판사인가  
를 확인하면서 생긴 버릇이다. 그만큼 사소함을 귀중히 여긴다. 산 때문이 아  
니라 조약돌로 인해 넘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리라.

〈소년중앙〉〈보물섬〉을 읽으며 무척 내성적인 청소년이었던 그는 홍대 미  
대에 다닐 때 만화서클 '네모라미'에서 편집장까지 할 정도로 열성을 부렸다.  
그의 작품을 보면 한 사람이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느낌이 각각  
다르다. 내공은 그렇게 길으로 의심없이 드러나는가. 업계에서 꽤나 실력자로  
인정받는 그도 책을 읽다가 스스로 동의하지 못하는 구절이라도 나오면 머리를  
싸매 정도로 고심한다. 당연 결과물도 썩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그가 만나자마자 책 이야기부터 늘어놓았던 배경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  
다.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텔레비전을 치웠기 때문에 그 여  
백을 책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는 24시간 중 20시간은 텔레비전이  
혼자서 떠드는 게 일상생활이었지만, 3년 전부터 텔레비전과 안녕 했다. 한류  
열풍까지 일으켰던 드라마 <대장금>도 못 봤던 그이다.

“한번은 '대장금' 과 관련한 일러스트를 그려달라고 해서 주위사람에게 스

토리과 캐릭터를 물어보고 그린 적도 있어  
요.(웃음)”라며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직접 눈  
으로 보지 않고 그린다는 장점은 패러디가 없  
어졌다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상투적인 그  
림이 나오지 않는 법이다. 정보가 다르니 더  
신선할 수밖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에  
책을 많이 읽게 되고, 자연스레 인풋이 바뀌니  
까 아웃풋도 바뀌는 건 당연지사. 그는 “오히  
려 남과 나를 구분하는 선을 긋고 차별하는 대  
안이 된 셈”이라고 풀었다.

텔레비전만 없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없다.  
집이 작업실인지라 핸드폰은 어쩌면 불필요한  
요물일지도 모른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집을  
비우는데, 이 날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줄줄이  
만나고 들어간다. 듣고 보니 인터뷰하는 날도  
선약이 잡혀 있는 오랜만에 출타하는 날이었다.

그는 지난 2월 12일부터 <조선일보> 연재소  
설에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계약을 해서  
차근차근 내는 것이란다. 최근 출간된 <노빈손  
시리즈> 이후 여러 가지 별려놓은 일이 많다. <  
삼국지> 등 단행본 시리즈물 외에도 세계사교  
과서를 만화로 보여주는 작업도 그의 손을 기  
다리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형호제하며 지낸다는  
소설가 김영하 씨를 만나기 위해 휘적휘적 걸  
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끊임없이 분출하는  
아이디어의 근원은 어디일까를 생각했다.

“책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을 읽다보니까  
머릿속에서 화학작용이 마구 일어나겠죠. 이  
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항상 새로운 것을 추  
구하려고 해요. 삶의 일부인 책읽기는 아이디  
어를 만나는 오아시스와도 같고요.” **한우**

취재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